

[illegible]

ਸ੍ਰੁਦਾਏ ਦ੍ਰੁਪਦਾ.

[illegible]

▶	자	◀
시		2
여학생연의회사합동 기공식		3
남자선배가 여자후배에게 남자선배		5
여고 100인의 불처럼 온자서 각자 불 보고 남자 100인의 불처럼 온자서 각자 불 보고		7
당신은 어떤 타입 ?		9
93학번의 글		12
프로그래머가 그대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프로그래머		14
아아드마한 학교의 여자제거 아아드마한 학교		16
남녀관계개론		18
여성학 소개		21
화장의 미학		24

나 해석 콤플렉스

김 승 희

친구여, 세상에 그런 여인들이 있었다고 하지.

가면을 벗어 조용히 응접실 탁자 위
가족사진 옆에 포개어 놓고

나의 시간도 아니고

너의 시간도 아닌

'가정의 날'이라는 영리한 반공일같은

여정평한 주부의 직업을 달고

예미는 선각자였느니라.

추운 겨울날

다리를 건너간 여인들이 있었다고 하지

그리고 나해석은 거리에서 죽었어,

행려병자가 되어 쓰러지면서

그녀는 현시립 같은, 저너림 같은.

산소용접으로 뛰는 파란 불꽃 같은

쓰러지는 두 눈은 어둠 속에서 정녕

아름다웠지,

여자는 삼계에 집이 없어

아버지의 집도

남편의 집도

아들의 집도

여자의 집은 아니어서

여인에게 원래 횡단공포증 같은 것이 있어서

다리를 건널 땐 어지럽고 무서워

아버지나 남편의 팔뚝을 끼고 걷는 것인데

추운 겨울날,

홀로 다리를 건너간 여인들이 있었지,

부녀와 미열함이 겹쳐진

실내악의 방을 나와

다리를 건너

피안으로 홀로 가는 여인들은 보여주지,

사자와 고양이와는 똑같이 고양이과에 속한

맹금류의 동족인 것을,

여인들은 머리칼 위에 빛나는 야성의

화관을 쓰고

조용히 슬픈 선각의 사자후를 남겼지.

예미는 선각자였느니라. 고

친구여, 나해석은 그런 예미가 있다네,

나해석은 죽어서도 울게 묻히지 못하여

구천을 떠돌다가

이제 나해석으로 와서

내 가슴을 뒤흔들며 머물고 있으니

나 또한 미신처럼

그녀의 신뢰를 비밀히 모시고 있으니

여자는

왜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하여

자신을 천지사방 뒤흔들며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가,

겉절나비처럼 흰나비처럼

여자는 왜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하여선

항상 비명횡사를 생각해야 하는가

☆ 여학생협의회 사람들

하나, 여협인의 과거와 성격.

회장

좌충우돌하면서 대학 3년을 보냈다.

과 여성학회를 맡아먹은 경력을 갖고 있는데 이 후유증으로 한학기를 휴학, 복학한 후 정신을 수습해 제 6대 여학생협의회에서 통해 문화부장을 역임했다.

여성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실천하고자 제 7대 여학생협의회 회장 후보로 출마했는데 기대한대로 당선이 되었다. (참고: 실은 단독후보였다.) 현재, 추운 여협실을 날마다 들락거리며 94년도 여학생운동을 파격적이고도 힘차게 끌고 나갈 꿈에 시달리고(?) 있다.

참고로 주랑은 소주 2병정도

부회장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때문에 여성문제를 고민하게 되었다.

이후, 과 여성학회를 하면서 여성문제의 본질을 배워 나갔다.

여성학회를 하는 도중 신인발굴을 통해 부회장 후보로 출마, 당연히 당선이 되었다.

어떠한 경우를 당해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라고 배시시 웃는 널럴함을 지니고 있다. 겉으로 한없이 착해 보이지만 의외로 배짱파. 현재 여학생협회의 살림꾼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중.

기획부장

과 여학생부장을 지냈고 6대 여학생협의회에서 선전일을 하다가 7대까지 눌러 앉게 되었다.

잡일에 능해서 기획부장이 되었는데 가끔가다 자기자신도 놀랄만큼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뭐든지 많다. 말도 많고, 별명도 많고, 눈물도 많고, 돈도 많다. 또 '굉장히'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

현재 졸업 후 진로에 대해 묵하 고민중인데, 아무래도 호떡집이 제일 어울릴 듯. (참고로 '불난 호떡집'이 그녀의 별명중 하나다.)

편집부장

과에서 여학생 모임을 주도하려고 했으나 받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절망하다가, 현재 여학생협의회일을 함께 하면서 '서강 여성신문'을 다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성학 책을 두루 섭렵하면서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고 '한국여성 정치연구소' 인턴사원 경력도 있다.

롭니다.

대학은 '내일은 사랑'이나 '우리들의 천국'에 나오는 낭만과 자유가 100%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대학에 들어오기까지의 어려움은 차치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인상되는 등록금, 이 과목 저 과목 차별성이 없는 커리큘럼, 언제보더라도 부족한 복지시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취업의 전단계로만 전락하고있는 양성소같은 전쟁터... 권리보다는 의무가, 자유보다는 책임이, 미래보다는 현실에 짓눌리는 또하나의 고민과 갈등의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런 것은 피상적인 모습에 그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70-80년대 성장우선의 경제정책과 정치적 독재에 맞서 비판적 실천으로 행동했던 대학의 모습은 이제 소비지향적 생활패턴과 이기적 경쟁의식으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거의 것을 그대로 복구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이 시대에서 부딪히는 젊음과 좌절하지 않는 패기로 무장된 사회적 임무를 대학은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추상적 언명은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않으면 체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동아리, 학생회, 동문회 등의 다양한 경험과 편견에 휩싸이지 않는 광범위한 독서를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나라!"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과거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과 허황될지라도 미래에 대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단정하는 것보다 규명하고 해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힘찬 출발을 기대하며 공자님 말씀을 즐깁니다.

1994년 1월

☆ 기획광고

하나,

여학생들의(여학생)에 있으면 싶어 뽕뽕해 줍니다.

보글보글 끓는 물보다 뜨거운 인간관계가 '여학생'에 있습니다.

여학생의 뽕뽕함을 바로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개성, 개방, 개방.

제 7대 여학생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 연극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보고....

여성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여성문화예술기획에서 '자기만의 방'에 이어 두 번째로 올린 이 작품은, 많은 이에게 읽힌 공지영씨의 원작 소설을 연극화 한 것이다.

대학시절, 그들의 재능과 자아실현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가졌던 세 친구 혜완, 영선, 경혜는 10년이 지난후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절대로,'라는 말을 자주 쓰는 주체성이 강한 혜완은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아들이 죽은뒤 이혼하게 되고, '그래도,'라는 말을 자주 쓰는 순진하고 착한 영선은 남편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버리고 희생의 길을 선택하지만 결국 자살 소동을 벌이며(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어차피,'라는 말을 자주 쓰는 현실적이며 계산이 빠른 경혜는 남편의 노골적 외도 앞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택하는 자신의 비참함을 애써 합리화 한다.....

연극에 등장하는 세 주인공에게 관객들을 많은 공감을 가지게 된다. 결혼이라는 울타리 속의 삶이 혜완적 갈등, 경혜적인 이중성, 영선이적인 아픔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가 생각해본다. 연극을 보고 나면 결혼은 과연 이렇게 우울한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든다. 그렇지만 아니라고 쉽게 자신 하지는 못한다. 그리고는 결혼에 대해 내가 가지는 생각들이 환상일 뿐이구나 라는 비판을 하게된다.

남성 중심의 이 사회에서의 결혼은 여성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한다. 신데렐라를 비롯한 많은 동화속의 여주인공들은 왕자와 결혼에서 행복하게 살다 죽는다. 지난날의 아픔은 사랑하는 왕자와의 결혼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결혼은 모든 것의 완성이요, 결말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동화를 감명깊게 읽고 자랐다.

매주 목요일에는 (2월달은 수요일)주부 관객을 위해 아이를 위한 놀이방을 운영하고, 관객과의 토론의 시간을 마련한다. '결혼을 너무 부정적으로 그린 것 아니냐'는 젊은 여자 관객의 물음에 각색자는 '실제로 결혼이 우울한 것만은 아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은폐되는 문제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문제적인 것의 전달로 더 나은 방향으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어떤가.'와 같이 말하고 연극을 단편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한 남자 관객은 영선의 죽음에 대해 '착한여자 콤플렉스가 아니

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는, 「가정 주부가 집안에서 안정된 것을 추구하려 하지만 실존적으로는 안정된 상황을 물고가지 못하고 있다. 내외의 여러 요소들이 교란을 일으키게 한다.」라고 경험에 비춘 답변을 해준다.

50代 주부 한분은 「주인공들이 겪는 갈등은 몇십년 결혼 생활에서 생길수 있는 위기를 경고하거나 회고하는 차원에서 감명깊었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같이 토론에는 폭넓은 연배의 관객들이 참여한다.

「무소의 뿔.....」은 관객들에게 결혼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우리가 막연히 품고있던 결혼에 대한 생각들을 무참히 깨버리고는 말이다. 그렇다고 결혼이라는 것에 지나치게 비관의 색깔을 칠할 필요는 없다. 연극이 제시하지 못한 대안을 찾기위한 노력은 바로 우리가 해야할 일이다.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라는 말의 주인공임에 당황하지 말고, 비록 누추한 선택이라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서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만남으로 결혼이 더이상 무덤이 아니기를 바란다.

무력에서가 아니라 능력에서, 자기를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확립하기 위해서 여성이 사랑하 는 것이 가능한 그 날, 사람은 남성에게 있어서 처럼 여성에게 있어서도 생명의 원 천이 되어버린 치명적인 위험은 되지 않을 것이다.

(시몬느 보바르 '제 2의 성' 중에서)

☆ 기획광고

들,

서경여성신문 스포츠부 모집

대상: 여성문제에 관심이 있는 서경인

작품: 남녀가 어우러져 일제시는 사회를 꿈꾸는 자

글을 읽고 글을 쓰는 자

모집장소: C관 2층 복도 끝 여업실

문의처: 여학생협의회

전화문의: 705-8265

☆ 당신의 TYPE을 찾아보세요.

- | | | | |
|--------------------------------------|-----------------|---|--------------------------|
| 1. 형광등을 갈아끼울 수 있다. | Yes-2
No-3 | 12. 남성적인 여자친구를 좋아해 본 적이 있다. | Yes-14
No-15 |
| 2. 체육보다는 차라리 가사과목이 더 좋았다. | Yes-4
No-3 | 13. 여성학을 공부해 보고 싶다. | Yes-16
No-15 |
| 3. 미성년자 관람불가영화를 5편 이상 봤다. | Yes-5
No-4 | 14. 대학오면 꼭 살을 빼야겠다고 생각했다. | Yes-17
No-16 |
| 4. 뉴스는 안봐도 주말연속극은 꼭 본다. | Yes-6
No-5 | 15.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있거나 사귀고 있다. | Yes-18
No-17 |
| 5. 가사나 가정정보보다 공업이나 기술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 Yes-7
No-6 | 16. 보은 진관 사건이나 윤금이씨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 | Yes-18
No-17 |
| 6. 서울대, 연고대 이하와는 미팅하기 곤란하다. | Yes-9
No-7 | 17. 하이틴로맨스를 즐겨 읽었다. | Yes-19
No-18 |
| 7. 주위에 존경하는 여자분이 많다. | Yes-8
No-9 | 18. 나는 소망한다. 평생직업을. | Yes-20
No-19 |
| 8. 담배를 피워 본 적이 있다. | Yes-10
No-9 | 19. 대학과 결혼문제를 연관시켜 생각한다. | Yes-A Type
No-B TypeE |
| 9. 고등학교 때 긴머리를 선호했다. | Yes-12
No-10 | 20. 여성이 남성과 동등해지기 위해 서는 실력을 쌓는 수 밖에 없다. | Yes-D Type
No-C Type |
| 10. 요즘엔 여성의 지위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 Yes-11
No-13 | | |
| 11. 남자와 여자는 평생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Yes-12
No-13 | | |

지금까지의 당신은,

그러나.....

A TYPE

당신은 여성적인 여성

당신은 사회적으로 여성적이라고 평가받는 품성과 사고방식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성적인 사람이라기 보다는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이 여자라는 '성' 정체감이 뚜렷한 편이며, 여자로서의 부자유스러움을 느끼면서도 당신은 그다지 반항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소극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심어준 여성상에 대한 스테레오타입(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실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여자를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올바른 여자로 리메이크할 수 있지 않을까요?

B TYPE

당신은

여성으로서 자신있는 여성

당신은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여자로서 겪는 부당함을 별로 경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사회에서 성공하면서 살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성공과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형입니다. 이를테면 대학 생활에서 공부도 열심히, 연애도 열렬하게 할 타입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사회의 여성 억압적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개인의 힘 만으로, 그리고 뛰어난 여성 몇만의 힘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신은 뛰어난 여성이 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신 하나가 예외적인 소수자의 위치에 올라서는 것보다는, 모든 여성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단지 여자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C TYPE

아니, 이럴수가.

당신은

여성문제가 먼지 아는 여성!

당신의 현실파악 능력은 뛰어납니다. 당신은 이미 여성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것도 느끼고 있군요. 여성 문제가 단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진취적으로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천해 나가는 미래의 당신 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남보다 현실적이기 때문에 자칫 여성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무기력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말이죠. 아무리 현실의 벽이 높아도 부당한 현실에 대해 느끼는 당신의 비분강개함 보다는 높지 않겠조?

D TYPE

당신은 씩씩한 여성

당신은 남향성(男向性)이 강하군요. '에프다'라는 말보다는 '멋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당신을 여자와 남자자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남학생들과 함께 대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여자 친구보다는 남자 친구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군요. 당신은 남자처럼 살고 시피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당신의 당찬 모습으로 외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미 여성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성으로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태도는 그것을 반증합니다. 만일 사회적으로 정말 여자답게 산다는 것이 긍정적인 것이라면 당신이 구태여 남향성을 지향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자답다', '남자답다'라는 평가가 각각 열등함과 우월함을 나타내지 않는 사회, 남성적인 품성 뿐 아니라 여성적인 품성의 장점도 함께 갖춘 양성적인 인간이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P.S. 이 자가전당은 신뢰도가 51%입니다.

진단이 틀렸다면, 모든 type에 대한 분석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93학번 남학우의 글

사회학과 신 인식

나의 1년간의 대학생활은 차라리 싸움이었다. 고 3, 재수 1년의 의미없는 시간들에 끌려다니다 무작정 나를 찾아야겠다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싶다는 충동과 욕망으로 실사없이 나를 질타하고 채찍질하며 내 자신을 반성해 보고 성찰해가며 때론 주먹을 불끈쥐며 하루하루 싸워나갔다.

소위 '경험론자'로 나를 자칭하면서 무엇이든지 부딪쳐 보지 않고 느껴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1학기에 '과대표' 생활을 하며 여러 친구를 만나고 사귀며 여러 사람의 삶을 간접적으로 느껴 보았으며, 데모에 나가 '운동'에 한 나 나름대로의 비판과 갈등을 고집해 보기도 했고 학회를 하며 '토론'이라는 또 다른 문화에 접해 보았고, 노래방에서 공연을 하며 박수도 받아 보고, 잠시나마 동아리에 매달리기도 해보았고 뜨거운 의리와 우정을 경험했고 아픈 사랑을 맛보기도 했다.

물론 그것 하나하나를 알고 깨닫기에는 아니 단지 맛만보기까지에도 여러가지 장벽들이 나를 에워싸고 조여왔다. 학기 초에 말 잘듣고 착한 아들로 커주기를 바라시는 부모님과 매일 술마시고 가끔은 외박도 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가서 싸워야 했던 힘겨운 기억, 내 자신을 찾아보겠다고 혼자 다니며 외로움과 고독을 씹어보던 1-2개월 동안의 가슴겨운 추억, 이상과 현실 속에서 방황하며 '결국 내 자신도 현실속에 하나일 수 밖에 없는가'하며 괴로와하고 고민했던 모습.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나를 더욱 크고 나은 모습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 확신한다.

대학이라는 문화속에서 가질 수 있었던 이러한 고민들과 성찰이외에 '미팅'을 통한 이성친구와의 만남은 또 다른 즐거움이었다. 2학기에 '여성학'을 수강하며 스스로 '여자'라는 존재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기 전까지 '여자는 잘 순종하고 편안히 대해주고 이쁘면 그만이다'라는 단순한 생각들을 가져왔다. 하지만 지금의 생각들이 그전의 생각들과 정반대는 아닐지라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더불어 '여성해방운동'에 대한 비판도 나름대로 해보았다. 상민이 양반에게 종속당했고,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착취 다하듯이 여성도 남성에게 종속당하고 착취되었다는 극단적인 생각들에 너무 치우친 듯하다. 상민이 지각있는 양반의 도움이 있었기에 반상구별의 개념을 결국엔 떨쳐버릴 수 있었고, 노동자는 그들의 단결과 더불어 지식인들의 협조, 지주와의 타협이 있었기에 더 나은 생활을 기대할 수 있었듯이 여성운동가들도 남성들이 그들의 문제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공유의 길을 터줄 수 있는 여유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남자로서의 이기적인 생각을 해보았다.

하지만 이젠 나도 마음을 열고 그들의 고민에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자세를 갖추듯, 여성들도 남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통과 갈등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양자가 서로를 바라본다면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거라는 바램을 가져본다.

“여러분 새내기 맞아?”

93학번 여학우가 후배들에게 주는 글

생물학과 김 수진

94학번이 들어온다!

좀 실수를 해도 통하고, 한없는 어리광을 부려도 괜찮았던 막내자리를 이제 내주어야 한다니 섭섭하다. 그치만 선배들이 따뜻하게 대워 놓았으니 '94 후배님들이 없기에 그리 썰렁하지만은 않겠지.

지금 신입생들의 눈빛은 아주 맑고 초롱초롱하다. 자신감에 차있고 무엇이든 던져주어도 다 할 수 있을 듯하다. 참 부럽다. 저 넘치는 충기,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가 나를 슬며시 미소짓게 한다. '나도 작년에는 그랬을까? 정말 부럽군.' 그 눈빛에서 나는 선배로서의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를 다스리게 된다.

이제 그들이 맞게된 새로운 생활은 어떠할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하고, 새로운 고민들이 달려올 것이다. 지나고 보니 나의 일년은 격동의 세월이었다. 그 이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쏟아져 와서 나의 뺨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갔다. 내가 너무 어려서(? 우리와 나모군이 푸하하! 하고 웃을 것 같은.) 그랬는지 지난 일년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 물론 지금도 그 과정에 있다. 그 어려움이란 것의 원인은 크게 보아 외로움같다. 고등학교 때와 변함없는 생각으로 나를 대하시는 부모님, 가족, 그리고 새롭게 나를 이끌어 가려는 대학교의 새로운 사람들. 학교에서의 일을 집에 이해시키는 것도 힘들었고 집에서의 귀가시간 조치나 M.T 팔리기 등을 단순히 고지식하고 과잉보호적인 처사로 받아들인 학교 사람들도 그랬다. 난 어느 쪽에도 맘놓고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다. 집에서는 과감하게 선배나 동기들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는 무능력자로, 학교에서는 부모님을 설득 못라는 무능력자로 인정받는 느낌이었다. 너무 나이들어서 징징거릴 수도 없고 해서 나는 어느때 부터인가 마음 저 깊은 곳의 문을 닫아버렸다. 남들이 보기에 명랑하고 대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어리고 어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견딜까...

이쯤하면 이 글을 읽는 새내기를 띄우고 겁주고 다한 것 같다. 이제 여러분에게 악을 줄 차례가 아닌지... (놀라셨다구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첫째, 야망을 가지기 바래요.

앞으로의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길이 여러개가 나올텐데 언제나 먼저 간 사람들이 그 길은 이리이러해서 힘들고 저길은 이리이러해서 힘들다는 말을 해주곤 하죠. 그때마다 힘들다는 말때문에 해보지도 않고 겁먹고 주저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못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 어렵다는 입시관문도 뚫고 들어 온 사람들 아닌가요? 무엇이든지 잘 생각해서 도전해 보세요. 우린 아직 젊잖아요!

둘째, 여자라는 방패뒤로 숨어버리지 마세요.

이말에는 여러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 특히 여자들끼리 착공을 만드는 것, 그래서 남자니 여자니 하며 어울리는 데 구분을 두는 일이 없었으면 해요. 또한 여자라는 특권을 앞세워 한발 뒤에 서려는 생각은 좋지 않아요. 그건 앞전도 겸손도 아니라고요.

하늘 같은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 앞에서 마지막 무정 좀 했는데 징그럽다 하시는 건 아닌지... 지루한 얘기였지만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모든 글 다 말해주지 못하는 것이 늘 안타깝네요.

☆ (풍트)

단지 그대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어굴해 씨는 참담한 기분을 지을 수가 없었다. 세상에 이럴수가 있는가 싶었다. 아무리 직장 상사라지만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벌이 잘난 것도 아닌 현나영 대리가 조금 전 결재 서류를 내명개치며 한 말 때문이었다.

"남자들이란, 장가나 가지 뭐하러 직장에 꾸역꾸역 기어들어오는지 몰라."

이 말을 들은, 같은 사무실의 남자 직원들은 모두 울분을 느꼈지만 하루 이를 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푸로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었다. 어굴해 씨는 대학을 졸업하여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선배들이 말한 것을 하나하나 겪고 보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자기도 부모님들이 남자가 대학엔 가서 뭐하라는 구박 들어가며 어렵사리 대학 와서 남자들은 취업이 어렵다는 선배들 말을 듣고 3학년 때부터는 서클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영어와 상식에만 매달려서 여자들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대기업에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이지 억울해서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굴해 씨 친구들 사이에선 어굴해 씨의 취업을 굶지 않은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어굴해 씨는 1미터 80센티의 키에 수려한 눈매, 짙은 눈썹, 건장한 체격으로 학교 다닐 때부터 여선배들이 군침을 흘려온 터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굴해 씨는 연애한 번 잘못했다가 장가도 못 갈까 봐 마음에 드는 여자는 있었지만 쉽사리 사랑에 빠지지도 못하고 4년을 보낸 터였다. 하지만 어쨌든 입사 면접에서 어굴해 씨보다 훨씬 성적이 좋은 군대 동기가 못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떨어졌노라고 분해 하는 것을 보면 역시 학교 다닐 때 돈들어서 헬스클럽 다녀서 군살 빼고 웃을 때도 멋있게 웃는 연습을 평소에 착실히 해둔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장가 간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어차피 이 직장도 장가가면 그만두어야 할 판인데, 자기 실현은 고사하고 매일 복사나 시키질 않나 여자들 은행심부름을 맡기질 않나 심지어 입사동기인 서정연 씨는 자기 생리대까지 약국에서 사다달라는 판이니 열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일언지하에 그런 부탁을 거절하자니 저 남자는 싸가지가 없다는니 장가가긴 다 틀렸다는니 별 소리를 다 들으니 안 할 수도 없는데다 같은 입사동기 남자들 중에는 자진해서 "자영 씨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커피 뽑아드려요?" 그러면서 아양을 떨니 그런 걸 문제삼는 남자들은 아예 성격파탄자 내지는 비사회적 성격의 소유자로 낙인찍혀 회사 안에서 좋은 신분감 얻을 생각을 애시당초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도 그런 건 참을 수 있었다. 그런데 여자직원들이 노골적으로 음담패설을 하면 자기가 당황하는 걸 즐기는 것은 도저히 도저히 인간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었다. 여직원들의 음담패설은 어굴해 씨가 어쩔 줄 몰라하면 더 강도가 심해지고, 어굴해 씨가 그만하라고 화라도 낼라 치면 또 성격이 이상하네, 농담도 못하네, 어쩌구 그러면서 발뺌하고, 막 웃어대면서 맞장구를 쳐주면 지들끼리 술자리에 가서 저 남자는 날라리네 걸레네 어쩌구 떠들어대니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것이었다. 선배 남자들에게 물어보면 신경쓰지 말고 아무 표정도 짓지 말고 그저 다소곳하게 있으라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그래도 말로하는 건 나은 편이다. 세숫대야와 몸매가 좋은 덕분에 어굴해 씨는 온갖 일을 다 당하는 것이다. 입사면접 때도 중역으로 보이는 40대 아줌마가 느물느물 자기를 위아래로 훑어보는가 하면, 최진실 대리는 노골적으로 술잔잔 하자며 자기를 데리고 가서는 집에 가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외박할 뻔한 적도 있었다.

그런이 아니다. 30대 중반의 김미숙 과장은 결재서류를 넘겨주면서 은근슬쩍 손을 잡는가 하면, 엘리베이터에서 부딪히면서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손으로 슬쩍 치고 가며 어굴해 씨가 놀라 쳐다보면 씩 웃고 가버리는 것이었다.

꼭팔려서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집에 가서 이를 수도 없고 정말 사람 미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을 못 참고 따졌더니, "아니 이 남자가 어디 와서 행태야? 이게 누구 가정을 파괴할려구 이래?"하며 잡아때는 데는 당할 도리가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료 남자직원들도 어굴해 씨의 처지를 이해하기는커녕 '내가 꼬리를 치고 다녔으니 그러지'하는 눈길로 패러볼 뿐이었다. 가뜩이나 출퇴근 시간에 몸을 비벼대는 처녀들 때문에 짜증이 나 죽겠는데 이 회사 여직원들은 자가용으로 기분 좋게 출근해 욕구를 해소 못해서 그러는 건지 도통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갔다.

오늘 같은 날은 정말이지 회사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장가갈 때 해야 할 지침금 마련 때문에 붓고 있는 적금도 있고 직장 가진 남자 좋아하는 요즘 여자들 취향 땀에 그만둘 수 오 없었다. 그래서 사무실에선 여자들 눈총에 피우지 못하니 욕상에 올라가 담배나 한대 피워야 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욕상에 올라가니 환기통 저편에서 야릇한 신음소리가 들리는 게 영 이상해서 몰래 가 보니 입사동기 김현수 씨가 영업담당 이사인 김순자 씨와 뽀얀 신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예구 못 볼 걸 봤다 싶어 돌아가려는데 그만 이사와 눈이 마주쳐버렸다. 예구 남태다 싶어 황급히 뒷걸음질을 치는데 갑자기 발밑이 허전하더니 으악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어굴해 씨는 욕상에서 곤두박질을 쳤다.

"어굴해 씨 일어나세요.... 무슨 잠을 그렇게 주무세요? 자 커피 드세요. 아까 3시에 커피 빼다 달라고 그러시고선...."

어굴해 씨는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위를 둘러보니 회사 사무실의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눈 앞에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서정연 씨가 자판기 커피를 받쳐들고는 교태로운 웃음을 짓고 있었다.

"아 꿈이었구나!"

어굴해 씨의 와이셔츠는 온통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서정연 씨, 커피 고마워요, 으.... 다음엔 제가 빼다 먹을게요...."

☆ 기획광고

셋.

봄을 맞는 기분

새로운 것을 기다리는 설렘

서강여성신문이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나고자 합니다.

강남여가 서강여성신문에 좋은 이름을 붙여주세요.

격막한 이름이 떠오르셨습니까?

☆ 알아들만한 학교안 여기저기

#여학생휴게실

어정평하게 남아있는 공간시간, 아침부터 날씨가 뜨거워져서 잠시나마 어딘가에 눕고 싶을 때, 친구들과 조용히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복덕대는 식당과 라운지가 번잡스럽다고 느껴질 때, 써야 할 리포트가 산더민데 도서관은 이미 사람들로 꽉꽉 들어 차있을 때....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망설이지 말고 여학생휴게실 문을 열어보세요. 여학생휴게실에는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락한 소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탁자와 의자, 머리카락을 가득 채워줄 신문과 문고, 그리고 서로를 이어줄 메모판과 열린여론공간 등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학생휴게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구요?

우리 학교에는 모두 2곳에 여학생휴게실이 있어요. 하나는

C관 2층 계단에서 약 5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이 이 자료집을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제 7대 여학생협의회의가 동지를 틀고 있는 여학생협의회의실이구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교양국어와 영어를 듣게 될 X관 건물 1층에 마련되어 있어요. 이 것은 여러분의 강의실에서 로비쪽으로 꼭 따라가다 보면 중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앗! 화장실이 어디있지?

처음 가게된 건물에서 누군가가 느끼게되는 당혹스러움중의 하나가 바로 화장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학교 역시 예외는 아닌데 학생중의 다수가 남학생인 관계로 아직은 많은 부분이 남학생들 위주로 되어있는 것 또한 사실이구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각 건물의 화장실 위치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의 과방이 위치한 C관에는 1층, 2층, 3층에 화장실이 있고 이중 3층 화장실이 가장 사용하기에 편리하구요.

다음으로 X관 건물. 여기에는 2층과 4층에 화장실이 있고 이중 2층이 이용하기 편리하죠.

도서관. 일단 참고열람실로 들어가면 3층과 4층에 화장실이 있고 밖으로 나오면 신관으로 돌아가는 쪽에 넓직한 화장실이 있지요.

K관 이 건물에는 1층, 4층, 5층에 화장실이 있구요. 이중 가장 사용에 편리한 곳은 1층이죠. 왜냐구요? 그 이운 한 두번만 사용해 보시면 다 아시게 될꺼라구요.

이공인들의 궁지 RA관. 여기에는 2층과 4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다른 건물에 비해 다소 불편한 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사과대 건물인 D관. 이곳은 화장실에 관련한 우리학교에서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왜냐구요? 이 건물에는 매층 여자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생리대자판기는 C관 여학생휴게실과 X관 2층 화장실, 그리고 도서관 화장실에 있구요. 학교측에 계속 증설을 요구하고 있으니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그 밖의 명소들...

하나, 원형극장

이곳은 교문을 막 들어서면 청년장장 원편으로 꼭 나있는 숲밭속에 있는 보물같은 장소죠. 이곳에서는 각과 노래패, 풍물패, 공연 중심의 동아리들의 연습이나 공연이 자주 열리곤 하죠. 또 늦은 밤, 마음에 맞는 친구 몇 명이서 오붓하게 술잔을 기울이면서 우정도 쌓아가고 인생에 대해 고민하기에 딱 좋은 장소라구요. 날씨가 좀 풀리면 친구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원형극장에서 한번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나눠보는게 어떻겠느냐구요.

둘, 등나무

다들 K관에는 가보셨을테니 등나무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겠죠? 맞아요. 농구장 옆이에요. 아직은 실감을 못하겠지만 5월달이 되면 왜 이곳이 명소인지 알게 될꺼라구요. 점심 후 잠깐 쉬는 곳으로는 최고로 시원하고 거기 있다보면 아는 얼굴들도 꽤 많이 만나게 될꺼예요. 특히 여름이 되면 이곳이 약속장소로 각광을 받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등나무의 숨은 정치는 석양무렵이라구요.

셋, D관 지하 Lobby와 2층 휴게실

D관 지하 Lobby는 사실 별도의 분리된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업시간 중간에 잠시 쉬기에는 딱 맞는 곳이에요. 특히 더운 여름엔 아마 여기가 우리학교에서 가장 시원할 것이라구요. 참 그리고 한번쯤은 계단에서 친구들과 라운지 국수나 김밥을 함께 먹어보는 것도 또 하나의 추억이 될 수 있을꺼예요.

2층 휴게실은 엘리베이터 왼쪽으로 돌아가는 통로를 따라가면 있어요. 우리학교에서 가장 깨끗한 소파, 음료수 자판기, 탁 트인 정경... 여기는 단순히 쉬는 곳 뿐만이 아니라 약간은 심각한 논쟁도 해볼만한 곳이죠.

☆ 벌써부터 열병앓는 그대에게

-남녀관계 개론

전 현수(생물 '92)

우선 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저는 72년생으로 국민학교는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남녀 공학을 나왔습니다. 지금 적을 두고 있는 생물학과는 이공대 치고는 비교적 여자가 많은 편이고 현재 몸을 담고 있는 동아리나 모임도 여자가 꽤 눈에 띄는 것들입니다. 다른 학우들에 비해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이성을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기를 마셨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이런 조건에서 커온 것들이 '남녀문제'라는 화제가 나왔을 때 할 이야기가 많은 저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새내기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게 될 즈음해서 군대에 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제 개인의 이익이나 다른 딴 생각은 전혀 안 품었음을 밝힙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아주 가까이 있다 해도 그 두 마음을 잇는 끈은 복잡한 감정의 곡선을 휘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면서 지저분한 것이 사랑이고 정말 알 수 없어 아름답다는 말과 더럽다는 말을 동시에 듣는 말이 '남녀관계'입니다. 인간관계속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라 다른 일들이나 동성친구와의 우정과는 마찰을 생기게 하고 어느 경우엔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푸는 이야기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몇 년 후에는 송두리째 바꾸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이나 혹은 더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에 의하여 바로 지금에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논리를 가지고 졸업때까지는 지속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방진 생각도 해 봅니다. 저는 남자라는 생물학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라도 지금까지 주위의 여자분들과 어느 정도 대화를 해 보았다고 자부하므로 이것을 방패 삼으렵니다. 그것이 후에 쏟아질지도 모르는 비난을 막아주리라 믿습니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어떤 한 가지 의문에 고개를 갇혀버렸습니다. 생각해보시지요. 어느 공간, 그 어떤 모임 - 한 뼘만 있는 곳은 빼도록 합시다. 여기서 '난 저 사람이 좋다'라고 말하는 구성원이 있습니다. 있지요? 좋다는 감정은 접어들도록 합시다. 이에 따른 상대방의 감정과 반응도 접어들도록 합시다. 좋으면 좋은거지 왜 떠벌리고 다닐까? 단순히 화제거리를 넓히기 위하여 그런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면 연결이 된다는 사례라도 보거나 들었는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엔 상대방이 기분나빠할지도 모른다는 출혈이 따릅니다.

공공대인 나날들을 마감하고, 가까이 있는 선후배, 동기들의 행동과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어느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도와달라'라는 돌려치기라고 - 남녀 구별없는 common data-. 친한 친구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그런 사건이 벌어진 공간에는 이런 친구들만이 존재하란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백의 화살을 맞은 과녁은 물론이고, '저 사람은 내가 침 발랐으니 건드리지말라'라고 해석해 기분 나빠할 사람, 줄지에 '눈에 가시'가 되어버린 과녁의 단짝 동성친구, 피해자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올 것입니다.

남녀관계라는게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문제점은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야말로 '원천봉쇄'입니다. 하지만 그런 재미도 없이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각자의 개성이나 '사랑방법'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곤란하겠지요. 다만 한 가지, 주위의 배려만큼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의 기분을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남녀관계 - 맺어지고 안되고를 떠나서 - 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잘 굴러가게 하는 윤활유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에서 남자가 C.C.로 떨어지는 확률을 매우 낮고 오히려 친하게 지내다가도 떨어지는 때가 茶飯事이니 '집어치워라'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화제를 바꾸어봅시다.

이제 '94 새내기 여러분께서도 꿈에서나 그려보던 meeting을 하게 됩니다. meeting이 끝난 후 사후처리 - 다시 말해 차값 -은 어떻게 하는게 옳다고 보는지요. 대부분의 경우 남자가 내고 간혹 '더치페이'라는 잘못된 영어로 표현되는 방법을 쓰기도 하지요. 비단 meeting만이 아니라 남녀 date시 드는 비용은 거의 남자가 부담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남자는 땅파면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많은 사고의 전환으로 같이 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같아 바람직한 현상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각 성별 골볼건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남자니까 내가 다 내야 해'라는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고 남자의 경우는 '남자니까 내가 다 내야 해'라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신이 똑바로 박힌 분이라면 상대방이 언제나 모두 부담하는 걸 원치도 않을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거북할 것입니다. 남학우 여러분께서는 자기가 모두 돈을 내는 것으로 '권위'를 찾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권위가 아니라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새내기 여러분께서도 이런 문제를 조금씩 조금씩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생각좀 해보시죠.

여성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매년 드는 것이 술자리에서의 음담패설노래입니다. '영자'와 '이대'로 대표되는 이것들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내고 어떤 루트로 알려지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남학우들이야 생각없이 그저 재미있어서 부를 수도 있지만 듣는 여학우들은 기분이 영 아닙니다. 저도 이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고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 외우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시간에 일반 생물학 공부를 하면 연습지가 신촌에서 모래내까지 왕복을 하고도 남을 텐데 말입니다. 노래는 그시대의 풍습과 세태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런 노래도 그것과 관련하여 적당한 핑계거리가 되고孟子님께서도 食과 色은 천성이라고 하였기에 얼마든지 돌려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사람은 小人입니다. 여러분에게 대학에 들어와 많이 들으실 '성의 상품화'란 말까지는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모든 단어까지 끌어들이것까지도 없다고 봅니다. 남학우 여러분, 바로 지금 같이 술자리를 같이 하는 동료 여학우의 표정을 한번만 더 쳐다보세요.

'너 그때 그 사람하고 어떻게 됐니?'

'응, 헤어졌어' ('끝났어'란 말도 무방함)

'찬 거야, 재인 거야?'

'(자랑스럽다는 표정 + 잘났다는 표정으로) 당연히 찻지!'

상대방을 찬 사람은 좀 더 높은 곳에 있어보이고 체인 사람은 낮아 보인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할까요. 누군가에게 좋아한다는 감정을 받으면 괜히 방방 뜨지는 않는지요. 사랑 고백을 받은 사람은 고백을 한 사람보다 잘난 사람인가요.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당장 고치시지요. 물론 이 글을 읽거나 경험하신 선배의 말을 듣고서 고치는 것보다는 몸소 실습하는 것이 좋을 듯 싶군요.

필자는 사랑 고백을 한 적도 있고 받은 적도 있습니다. 결과는 거지 같이 나왔지만 저는 여기서 몇 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것은 제 남녀 모든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얻어진 것이므로 일 반화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물론 세내기여러분께서 '구세대라서 그래' 그러시면 저는 할 말이 없 습니다.

첫째는 현실과 영화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대학 생활의 순간순간 저는 '이것 참 영화적 기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이 논리는 직접 체험하셔서 느껴야 할 부분 입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영화 속의 장면을 무의식 중에 이성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나와서는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서로의 합의하에 흥내 정도는 애교로 봐 드릴 수 있어도 그 이상은 두눈뜨고 못 봅니다.

둘째는 C.C. 당사자들은 어디까지나 과나 동아리라는 공동체내의 C.C. 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좋은 심든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논치는 있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들끼리만 꼭꼭 붙 어다니 선후배, 동기를 있으나마나한 사람으로 취급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자기의 반쪽을 있게 해 준 그 모임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사랑을 받을 궁리를 하기 보다는 사랑을 줄 궁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줄때가 더 행복하다는 진부한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음으로 해서 타인에 대한 과 시욕을 부리거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하지 마세요. 사람은 아무일도 하지않고 애정을 받을 만 한 구석이 없어 보여도 그 자체로 매우 존엄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나 사랑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추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결코 남보다 잘난것도 아니고 자랑거리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개강하고 국어 독후감이다, 리포트다 시험이다 해서 참 바쁘겠지만 남에게 정을 부을 시간을 따로 떼어두도록 하세요. 그것은 현대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인간형으로 그대로 길들여지기엔 너무 억울해서입니다.

#현대의 화장은 '얼굴의 복제시대'를 낳았다.?!!

아름다운 얼굴이란 말이 현대적 담론이고 화장품 광고카피들이 그 담론의 체계를 만들어 다량 으로 유통시키듯이 화장은 얼굴의 체계를 만들고 얼굴을 모델에 따라 대량생산해 낸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아침 스치듯 만나는 얼굴은 광고카피일지 모른다.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사람이 아 니라 얼굴이고 얼굴이 아니라 카피이다. 이런 의미에서 화장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미라는 매스 미 디어의 시대에 비토소 출현하고 이제는 얼굴 자체가 하나의 매체인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벤야민 의 '기술복제시대'를 한 술 더 떠 '얼굴복제시대'라고 말하는 것이 무리일까?

#화장한 얼굴이 자연미라니!!

화장은 이미지나 기호에 의해 표시된 것, 즉 브랜드화된 것, 미의 기표가 계산되고 그 계산에 따라 구성된 미를 가공하는 것이다.

"스스로 새롭게 태어난다 / 산소같은 여자 - 마몽드" 화장을 한 아주 얇은 막안에는 언제나 숨 쉬는 살결이 숨어있다. 그 곳은 신성한 곳이고 신성한 자리를 덮고 있는 막은 일종의 염호물이다. 그럴까? 화장은 가면처럼 겹겹이 뒤에 무언가를 은폐하거나 포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 없이 새로운 현실원칙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좀 더 아름답게'라는 구호가 이를 나타낸다.

#화장한 얼굴속에는 상품(돈)의 논리가 감추어져 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신체를 숭배하고 피부의 안팎에 아무것도 숨기는 게 없는, 그래서 추상적 일 수 밖에 없는 얼굴을 숭배하게 된다. 그러나 생얼굴을 메이크업된 얼굴로 만드는 복제과정 속 에서 우리가 숭배하는 것은 이미 얼굴이 아니라 가치이다. 얼굴의 질이 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것 이니까 말이다. 게다가 브랜드의 이미지=표시, 혹은 이미지의 표시=브랜드인 한에서 얼굴은 가치 가 구성되고 조립되는 과정속에서 소비사회의 얼굴로 나타나게 된다. 어느 브랜드를 사용하느냐 가 얼굴의 질과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자가기 위해서는 아름다워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화장의 논리는 화장을 하는 여자의 거울뒤에 숨어 어떤 이미지를 선택하게 하고 어떤 브랜드를 고르게 만드는 자본주의 사회의 감시논리이다. 신체, 그중 얼굴, 나아가 입과 눈과 안색에 대한 이 감시의 시선은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있다. 이 감시의 논리는 사회성을 이데올로기 삼아 소비자본주의를 조장한다.

*글을 쓰게 된 배경

'여자'가 화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매우 궁금했다. '이쁘게 보이려고'라는 말은 내겐 설득 력이 없었다. 내 나이 이제 26세, 연애도 해야할(?) 나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신념을 가지 고 도전하기로 했다. 그 첫단계로 '여성의 화장'을 선택했다. 게다가 - 이것은 초기 문제의식을 정돈하면서 생긴 것이다. - 화장의 이면에 숨겨진 자본주의의 논리를 간파, 추적하게 되었다. 결 국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절호의 기회를 갖게된 것이다. 많은 여성동지들의 관심과 격려를 바 랐다. 그리고 이 글은 결코 완결된 것이 아니다. 나의 이 조그만 문제의식을 이 글을 읽는 여러 분들이 더욱 발전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